

발전노조, 노동조합업무방해죄로 한국동서발전(주) 전 사장 이길구, 현 사장 직무대행 박희성 고소! 검찰의 진정성 있는 수사 이루어질 듯....

발전노조는 지난 9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동서발전의 노동조합업무방해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건은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고소의 최초사례로 법조계와 노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유행어를 만들어지게 한 이명박정권 하에서 동서발전은 2010년 발전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포섭하여 어용노조 설립을 지원/지도하였다. 또한 모든 과정과 결과를 수시로 청와대, 지식경제부, 국정원, 경찰청 등에 보고하고 논의했다. 발전노조가 2012년 동서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민사법원은 그들의 부당노동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하였지만,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2012년 발전노조의 고소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본사 압수수색 직후 담당검사가 이유 없이 교체되고 수사는 중단되었다. 이후 발전노조는 재발방지와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를 약속받고 고소를 취하였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는 사규를 개정해 당사자들을 승진시켰으며, 이후 노조파괴의 주범인 박희성은 출세가도를 달려 현재 사장 직무대행의 위치에까지 이르렀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이어오면서 발전현장에도 적폐세력들의 비정상의 만행들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전노조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검찰의 진정성 있는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 발전현장의 적폐세력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고소장 제출모습 - 신현규위원장(좌), 김현진동서본부장(중), 조수진변호사(우)]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재인대통령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지시에 떨고 있는 자 누구일까요? 발전노조로 제보 바랍니다.

한겨레신문 10월 30일 자 10면 기사

“소수노조에도 단체협약 찬반투표권 줘야” 법원 첫 판결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의 찬반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은 2개 이상 복수노조가 있으면 규모가 큰 ‘교섭대표노조’ 등으로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현행 제도 안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던 소수노조의 권리를 일부 확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MBC와 KBS노조가 공정방송을 기치로 파업을 시작한지 59일째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개봉한 ‘공범자들’은 정권이 어떻게 언론을 장악하는지, 왜 언론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발전노조는 언론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투쟁!

2017 전국노동자대회 “함께” 참여합시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7년 전국노동자대회가 11월 12일(일) 15시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된다.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모든 노동조합이 교섭할 권리, 다른 내일을 꿈꾸며 파업할 권리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자리이다.

전국노동자대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민주노총은 매년 11월 전태일 열사의 기일인 11월 13일을 전후한 추모 주간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노동자대회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노동계급의 투쟁성과를 모으고 다음 해의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이다.

전국노동자대회는 1988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및 노동악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전국 노동자 5만여 명이 집결한 대회는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어용노조와 정권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던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민주노조운동을 전국 조직의 건설로 나아가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 이날 대회의 성과는 곧바로 전국조직 건설로 이어져 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와 전국업종노동조합협의회(업종회의) 건설을 촉발했다. 이후 95년 민주노총 건설로 이어졌다.

자신의 몸을 불살라 노동조건 개선을
외쳤던 전태일 열사를
생각하며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같이하자. 더불어
2017년 노동자대회를
노조 할 권리를 뛰어
넘어 민주노조를 사수
하고 노동자투쟁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가자.



'87 노동자대투쟁 30주년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2017 1987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2017.11.12.(일) 15:00 서울시청광장

전야제 11.11.(토) 여의도
18:00 투쟁사업장 결의대회
19:30 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문화한마당

▶▶▶▶▶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알기!!!!

- ① 전태일 평전 (조영래 지음) ② 태일이 (만화 - 어린이와 함께)
- ③ 전태일 거리 (청계천 6가에 전태일 다리가 있고, 전태일 분신장소에 흉상이 세워져 있다.)
- ④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영화 - 1995년 개봉)

11월 30일(목)~12월 6일(수) 민주노총과 각 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임원선출 조합원 직선투표가 있습니다.